

수많은 명혈대지 생성...에너지 충만



해남읍은 현무와 주작이 제자리에 앉아 있어 풍수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형세를 취하고 있다. 해남읍의 전경사진

〈사진제공=해남군〉

■ 새로운 시대의 해남

옛날의 해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명문세가의 전횡과 토호세력의 발호가 심하여 행정이 굴절 왜곡됐다. 이로 인해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기층민의 생활이 피폐하여 그 성정이 매마르고 거칠어졌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르는 토반들의 외지인과 관료에 텃세와 견제, 그리고 내부 토호세력간의 불협화음에 따른 갈등구조 등 지역적 특수성과 산적한 민생 현안 때문에 해남현간의 부임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실제로 해남읍에서 마산면으로 넘어가는 고개에 "현감이 토반들에게 문안인사를 올리기 위해 아침마다 고개를 넘었다"는 '아침재'가 있다.

1782년 2월 역학과 풍수지리에 능통한 김서구(金書九)라는 사람이 현감으로 부임하게 됐다. 그는 먼저 읍의 진산(鎭山)인 금강산에 올라 해남의 지세를 살펴보니 청룡백호가 삼중사중으로 명당을 감싸 안으면서 견고한 성곽을 이루고, 고기(高奇)한 현무에 조응하는 주작(朱雀)으로서의 호산(胡山)이 빼어나서 많은 인제의 배출과 함께 토호세력이 끊임없이 번창한 지역임을 직감했다.

전라도 풍수가 바뀌고 있다

♣ 땅의 숨결을 따라 <19>

하지만 남서쪽으로 빠져나가는 물줄기의 수구(水口)가 관쇄(關鎖)되지 못하여 항상 물산이 부족하고 인정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기층민의 삶이 황폐해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토호세력 끊임없이 번창한 지역

그래서 현무 본신(本身)의 위세가 등등한 금강산 산정과 청룡의 왕성한 기운이 응결된 우슬재, 그리고 아집과 고집불통인 독산필(獨善筆)의 붓끝 역할을 담당하는 호산(胡山)을 각각 3자 3척씩 낮추어 지세의 예기를 꺾어버림으로써 토호세력의 발호를 막고, 현감의 직무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한다.

한편, 이후로는 지기가 손상을 당하여 해남에서는 빼어난 인재가 배출되지 않고 있으며 '해남 들감자' 또는 '해남 꽃나락'이라는 오명이 생겨났다고도 하지만, 확인할 길은 없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 깊은 토호세력의 횡

포가 근절되지는 않았는데, 이를 북쪽의 마산면에서 올라오는 황해(黃海)의 현무수살(玄武水殺)과 사방이 바다와 대강수(大江水)에 둘러싸여 있어서 생기는 차고 어두운 기운 때문이라고 여겼다. 풍수에서는 수전현무(水纏玄武)라 하여 물이 명당의 뒤편을 돌아 나오는 것을 대단히 귀하게 여기지만, 해남읍을 향해 쳐들어오는 마산면 앞의 바닷물처럼 대강수나 바닷물이 뒤를 치고 들어오는 것은 차고 어두운 살기로, 이를 대단히 흉하게 생각한다.

북쪽의 은적암에 불을 밝힘으로서 이러한 나쁜 기운을 누르는 소위 비보익압풍수(裨補抑壓風水)의 전형인 것이다.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이야기와는 달리, 해남은 그 독특하면서도 빼어난 풍광과 함께 풍수적인 아름다움이 넘치는 곳이다. 우선 해남읍의 형세는 현무와 주작이 제자리에 앉아 있고, 선후입(先後入)의 용호가 다양하여 풍수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개국하였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다만 수구가 교쇄(交鎖)를 이루지 못하고 주작이 이항사(離鄉砂)로 바뀐 까닭에, 고향을 등지고 객지로 나가야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국세를 이루고 있어서 이것이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해남은 과거의 해남이 아니다. 옛날 옛적 전통사회의 토호였던 몇몇 '특정 문종이 해남 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기층민들의 부러움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사라져버린 지금의 해남은 외지인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곳이다.

객지로 나가야 크게 성공할 형세

또 충분히 안락하게 살수 있을 만큼 이미 개방적이며,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에너지로서의 볼텍스(Vortex)가 충만한 땅이다.

백두대간이 굽이굽이 흘러와서 산진수회(山盡水廻)하여 마지막으로 용솟음치면서 만들어진 해남은 하원갑자(下元甲子)의 도래와 함께 땅기운이 변하기 시작하여 이미 수많은 명혈대지가 새롭게 생성되고 있으니 참으로 아름다운 후천세상(後天世上)이 열리고 있다.

/전중주 호남대 교수·한국 풍수지리학회 학술연구위원

■ 전라도 역사이야기

-백운동의 벽돌공장 박현영

日 징용피해 광주로 은신 무등산서 무장봉기 준비

일제 패전 직전 광주시 백운동의 한 벽돌공장. 과묵한 중년 사내가 묵묵히 벽돌을 만들고 있었다. 징용을 피해왔다는 소문이 있을 뿐 고향이 어딘지 내력이 어떤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해방된 이튿날 이 사내는 오간단 이야기도 없이 트럭을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벽돌공들은 그저 그런 사내의 행방불명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 사람이 바로 한국 공산주의운동의 거두 박현영(朴顯榮·1900~1955?)이었다.

일제 말기 최후의 공산당 재건운동조직인 경성공그룹을 이끈 박현영은 일제의 검거를 피해 광주 벽돌공으로 은신해 있었다. 항간의 이야기에 따르면 무등산 구리광산의 동파이프로 사제총을 만들어 최후의 무장봉기를 준비했다고 하며, 조선공산당의 강령이 된 8월테제를 성경책 사이에 빼곡이 적어 해방을 대비했다고도 한다.

해방 후 박현영은 감철의 혁명가, 의지의 화신, 불굴의 투사로 불리



박현영의 결혼식사진. 앞줄 왼쪽부터 소련대사 슈티코프, 김일성, 박현영, 김두봉

었다. 공산당 선전매체들은 박현영이 일제 말기까지 전항하거나 투항하지 않고 투쟁한 혁명가라며, '어두운 밤의 밝은 등불', '탄구에 솟아나는 한줄기 맑은 샘물'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아마 이 때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극적이며 장밋빛이었을 것이다.

충남 예산에서 태어난 박현영은 일찍이 상해로 건너가 사회주의를 접했으며, 1922년, 1925년, 1933년 등 세 차례 투옥되었다. 그는 1925년 제1차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질 때 자매단체인 고려공산청년회의 위원장이 된 한국공산주의 운동의 살아있는 역사였다.

1927년 정신이상 증세로 풀려난 박현영은 만삭의 아내 주세죽과 함께 소련으로 탈출했다. 한 생을 혁명운동에 바친 그의 가족사는 비감한 자체였다. 1933년 상해에서 남편이 일제에 체포되자, 아내 주세죽은 남편의 동지 김단야와 재혼했다. 그러나 김단야가 1937년 스탈린의 대폭정으로 처형되자, 주세죽은 유배형에 처해졌고, 어린 딸은 고아원에 맡겨졌다.

박현영은 1946년 미군정의 체포령을 피해 월북했다. 이후 남로당의 지도자로 북한정부의 부수상·외상이 되었지만, 한국전쟁의 비극을 비껴갈 수 없었다. 전쟁 책임을 둘러싸고 여제의 동지 김일성 뺨치산과는 박현영을 '미제의 고용간첩'이자 '공화국전범'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남로당의 몰락과 함께 박현영은 1955년말 혹은 1956년 처형되었다.

1949년 첫딸 박비비안나와 모스크바에서 찍은 가족사진 속의 박현영은 남북에서 모두 배척된 남한 공산주의운동의 역사를 보여주듯 처연한 눈빛으로만 남았다.

/정병준 목포대 교수

■ 전라도 방언 (18)

“아이구, 시상에...”

표준어와 달리 전남의 대부분과 전북의 일부 지역에서는 'ㄱ/ㅋ/ㆁ' 두 모음이 /E/로 중화된 대신 장모음 'ㄱ'을 가진 낱말은 대개 'ㅣ'로 발음한다. '네 : 가→니 : 가, 메 : 주→미 : 주, 베 : 개→비 : 게, 세 : 다→시 : 다, 셋 : ·넷 : →잇 : ·닛 : , 세 : 상→시 : 상, 제 : 발→지 : 발, 제 : 사→지 : 사'처럼. 그렇지만 'ㅈ'는 결코 'ㅣ'로 바뀌지 않는다. 가령 '새(鳥)'라는 낱말

을 어느 지역에서도 '시'로 발음하는 예는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전남방언 화자라면 누구나 어느 낱말의 모음이 'ㄱ'인지, 'ㅋ'인지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낱말이 'ㅣ'로 바뀌는가의 여부를 시험해 보면 곧 판단할 수 있다. '풀을 베다'에서 '베다→비다'는 가능하므로 '베다'가 옳고, '소가 새끼를 베다'에서는 '베다→비다'가 되지 않으므로 '베다'가 옳다는 말이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전남 동부권의 광양·구례지역과 전북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ㄱ' : 'ㅈ'모음이 변별된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서는 표준어와 같이 '게 : 개, 때 : 때, 배 : 배' 등이 최소대립어를 이룬다. 이런 현상은 아마도 전남의 서남부에서 발생한 음운변이의 개진과 이 지역에까지는 미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돈주 전남대 명예교수

■ 남도 야생화

-복주머니란



난초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식물로 깊은 산속 그늘진 곳에서 자란다. 키는 30~50cm 정도이며 남부와 중부지방에 걸쳐 분포하고 개화 시기는 5~6월이다. 꽃의 생김새가 복주머니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지만, 다른 이름으로는 '개불알꽃'이라고 한다.

/리규채 생태사자



이번만큼은 후회없이 딥화이트닝 아이오펜 딥화이트닝 인텐시브



■기미·잡티, 흉다는 건 다 써 봐도 왜 자꾸 눈에 띄는가?

기미·잡티는 불필요하게 많이 생성된 멜라닌이 피부세포들 깊숙이 쌓여있는 상태. 따라서 화이트닝은 겉에서 지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피부 속을 깨끗이 바꿔주는 딥화이트닝이어야 한다. 30대 여성이 무려 80%가 미백화장품을 이것저것 바꾸면서는, 당초도 미백화장품을 몇 번씩 교체해 낸 적이 없다면, 피부 속 깊은 멜라닌까지 노면에 기미·잡티를 집중관리해주는 딥화이트닝을 시작해야 할 때다.



■깊은 피부 속 멜라닌을 연추는 딥화이트닝- 아이오펜 딥화이트닝 인텐시브

'딥화이트닝'은 보통 1/100~1/1000 수준의 트윈트렌트 성분 피부 깊이 침투하여 멜라닌에 드루오사아 타지는 이오 오세틴의 집중호 이트닝시스템이다. 세포에 나리 화이트닝을 보니 기미·잡티를 없애는 곳까지 세심하게 피부 속까지 타르트로로 인해 미백작용을 하는 비티-인C유도체 등 미백효능성분이 발라스트를 통해 삼속이 성립되므로, 보다 효과적이고 트윈트렌트 가능하다. 기존-시제품 대비 선제 열공된 밝기 80% 증가, 기미·잡티 부위의 색소침착 개선 80% 증가 등의 뚜렷한 변화가 더 깊은 딥화이트닝의 효과를 증명한다. 여성들의 품없는 미백 욕망을 위해 캐논 아이오펜 딥화이트닝 인텐시브 - 한 달 이상 꾸준히 사용하면 기미·잡티가 현저하게 깨끗한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아이오펜 화이트닝 딥화이트닝 인텐시브

눈에 보이는 피부과학 -

IOPE

이오오펜 유통처에서 아이오펜의 모든 제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통처는 아래 4곳으로 구성된 화성물류센터입니다. www.hueplace.com

2006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대회

가슴으로 뛰는 모두의 축제

오늘 당신의 귀한 땀방울이 대한민국 여성건강을 지키는 힘입니다.

주최: 한국유방건강재단

주관: 대림암

일시: 2006년 5월 28일(일) 8:30

장소: 광주 월드컵 경기장

참가비용: 5km(간강코스), 10km(회암코스)

참가비: 1만원

참가신청: www.pinkmarathon.com

내 가슴엔 핑크리본

※참가비는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되어 유방암 예방에 사용됩니다.

이벤트: 유방촬영센터, 유방일부표검진, 가수공연, 어린이시상대회, 부부명상, 경품추첨 등 다량

문의처: (주)대림암 광주지역사업부 062-231-1700